

# The True School

'좋은 학생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한 교실에서 발견한 문구다. 열린 교육의 표본이 되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몸소 체험한 하루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1, 2 "명문 사학이 생각하는 교육의 시작은 건물의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학교 외관. 3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빛이 잘 드는 실내.

강남에서 시원스레 뚫린 제3경인고속도로를 따라 40분 남짓 달리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문을 연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Chadwick International)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교육기관인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교를 둔 글로벌 교육기관이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명문 사학이 생각하는 교육의 시작은 건물의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실감했다. 1만4천여 평의 대규모 평지에 설립된 단정하면서도 수려한 건물은 한눈에 보기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초등학교 건물과 중·고등학교 건물 사이에 체육관과 수영장, 대강당이 있는 시설 건물을 연결해 학생들의 동선을 최소화했고, 그 사이의 공간은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정원으로 꾸몄다. 인상적인 것은 통유리 벽과 천장을 통해 복도와 계단, 교실 구석구석에 햇살이 쏟아져 내리게 설계했다는 점이다. 선생님을 보며 동그랗게 둘러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런 풍경은 언제 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 열린 교육의 표본을 보여주다

오후 2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참관했다. 모든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IB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사 1명과 학생 8명의 소규모로 진행된다.(전 세계 175개 국가의 2,544개 대학의 고교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경험 학습을 통해 교육에 연속성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입을 봉어처럼 만들며 직접 만든 로봇의 나사를 조이는 데 열심인 남학생들, 자신의 키보다 큰 지도를 펼쳐놓고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여학생들에게선 금방이라도 핀자를 뽑어낼 듯한 벽찬 기운이 느껴졌다. 잼베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음악 수업,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도시에 어울릴 법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수업은 마치 놀이의 연장 같았다. 시스코 텔레 프레전스 룸(cisco tele-presence room)에서는 영상회의 방식을 이용해 미국의 채드윅 스쿨 학생과 인터내셔널 학





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700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에서는 연기자, 연출자, 무대 조명 감독, 음향 감독으로 분해한 편의 연극을 만드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스쿠버다이빙 수업이 가능한 아쿠아틱스 센터에서는 수영 수업이 한창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어떤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관찰하며 수업을 이끌어나갔다. 학생이 책임과 정직,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공정성을 몸에 익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라는 채드워스쿨의 교육 철학이 말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누군가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문구는 마치 급훈처럼 느껴졌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맞는지 낯설기까지 했다. 채드워 인터내셔널 총괄 제프 머서(Jeff Mercer)는 "채드워 인터내셔널은 75년 전통의 채드워스쿨이 '하나의 학교, 두 개의 캠퍼스(One school, two campus)'라는 슬로건을 걸고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채드워의 역사로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교와 같은 교육철학을 공유하여 오랜 세월을 걸쳐 검증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적 특성을 외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채드워 인터내셔널의 특징입니다."라고 말한다. 본교인 채드워스쿨은 지난해 미국 전역 사립학교 가운데 SAT 성적 2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학업성적으로 주목받았다고 한다. 이는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철학의 자연스런 산물인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학교 수업을 마친 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려 학원가로 향하는 학생들을 본다. 문득, 유년 시절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채드워스쿨이 설립된 이래 세계 최초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두 번째 학교를 세운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조금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 '세계적인 명문 사학이 왜 한국에?'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의문보다는 뿌듯함이 앞선다. 채드워 인터내셔널 송도 캠퍼스는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열린 교육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 에디터 황지아(프리랜서)**

1 건물 벽은 물론 천장에도 유리로 된 창이 나 있어 아이들의 걸음 걸음엔 언제나 빛이 따스하게 내려앉는다. 2 음악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3 오감을 일깨우는 공부방. 4 5 대강당과 체육관에서 수업을 '즐거고' 있는 학생들.

